

QR코드를 찍으면
인터뷰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더욱 안전하게, '열린 하늘' 만끽하도록 자동차 선루프용 롤러 블라인드 개발

하늘이 열리는 기술, 선루프. 미국에서 처음 시작된 선루프는 이름 그대로 햇빛 때문에 만들어졌다. 햇빛을 만끽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다. 거의 100년에 가까운 역사를 가진 만큼 선루프의 개폐 방식은 매우 다양하다. 위로 열리는 팝업(Pop up), 접히는 폴딩(Folding), 서랍처럼 뒤로 밀어서 여는 톱 마운트(Top mount) 등이다. 최근 주목을 받는 것은 파노라마(Panorama)로, 개방된 부위에 강화유리를 슬라이딩 형태로 처리한 방식이다. 금강이노텍은 국내 파노라마 선루프 시장에서 신뢰받는 유일한 회사로 생기원과 함께 파노라마 선루프에 필수로 사용되는 롤러 블라인드를 개발했다. 불량률 제로를 향한 금강이노텍 그리고 생기원의 기술 개발 지원 스토리를 들어왔다.

기술지원기업 (주)금강이노텍

연구책임자 동남지역본부 정밀가공제어그룹 김형재 수석연구원

롤러 블라인드 국산화를 위한 3년 반의 마라톤

“총 3년 반이 걸렸습니다. 이 시장을 선도하는 독일 B.O.S 사의 300개 넘는 특허를 피해가는 게 관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문제가 끝났던 건 아니에요. 특허를 피한 후에도, 60개가 넘는 부품을 어떻게 조합해 구동시켜야 하는지, 그 기나긴 기다림과 연구를 버텨야 했어요. 김형재 수석연구원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결코 완성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정준 부사장)

이정준 금강이노텍 부사장은 자체 개발한 롤러 블라인드 기술을 소개하며 과거의 연구과정을 회상했

다. 당시의 힘들었던 심경이 고스란히 올라오는 이 이야기 도중 웃음과 한숨을 함께 내쉬었다. 롤러 블라인드의 성공적인 개발 덕에 지금은 미소지으며 이야기 할 수 있지만, 개발 과정 중에는 ‘사업을 접을까 하는 고비에 여러 번 다다랐다는 이정준 부사장. “2008년부터 롤러 블라인드 기술을 자체 개발하는 내용을 검토했어요. 롤러 블라인드는 파노라마 선루프를 구성하는 ‘유리면’과 ‘차양막’ 중 차양막에 적용되는 기술입니다. 주로 사람 손으로 열고 닫는 차양막을 안전하고 부드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이죠. 파노라마 선루프 시장이 열린 후 고객의 수요는 높아졌지만 품질은 그에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국내 기술력이 없어 해외 기술에 의존하고 있었지만 해외 기업은 국내 시장의 불만사항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런 관행을 바꿔보자 생각했습니다.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모회사인 금강화학은 본래 자동차 내·외장 트림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롤러 블라인드는 자동차 내에서 계속 구동되는 메커니즘이잖아요. 인테리어와 내·외장재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던 금강화학이 움직이는 구동물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큰 도전이었죠. 하지만 대표님의 의지가 강했고 김형재 수석연구원님의 전문적인 경험 덕분에 지금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기존의 롤러 블라인드는 차양막이 말리고 풀리는

▼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정밀가공제어그룹 김형재 수석연구원(좌)과 (주)금강이노텍 이정준 부사장(우)

